

트럼프, 대선 걱정에 중국제품 관세 부과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무역정책을 놓고 '갈지(之)' 행보를 보이고 있다.

14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자 지난 1일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다음달부터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 전망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그러나 13일 트럼프 정부는 돌연 해당 목록에서 상당수 품목을 추려내 12월 15일로 관세 부과 시점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결정으로 관세가 미뤄진 중국산 제품 규모가 1,5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1,600억 달러어치로 추산했다. 수입업자들은 관세 부과가 연기된 중국산 제품을 미리 수입해 연말 특수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는 (대중 관

세로) 미국에 아무 피해가 없다."면서도 "크리스마스 쇼핑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작전상 후퇴'는 미국 대선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만 늘린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다수 경제학자와 기업들은 제품 가격 상승으로 결국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전히 기업 투자가 부진한 데다 반짝 살아났던 소비마저 꺾이면 내년 재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면 관세가 경기하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올 2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2.1%로 전 분기(3.1%)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무역전쟁 영향으로 올 4분기에는 1.8%까지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 전망을 내놨다.

“금값 2년 내 30% 뛴다” 온스당 2,000달러 전망도

주식부터 채권, 외환까지 금융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헤지펀드를 포함한 투기 거래자들이 공격적인 금 매입에 나섰다. 골드만 삭스를 필두로 월가의 투자은행(IB) 업계도 금 선물 시장의 방향을 앞다퉈 방향 조정, 금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고 있다. 이와 별도로 IB 업계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면전에 따른 경기 침체 경고가 연일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13일 '뉴스핌'에 따르면 골드만 삭스와 씨티그룹은 전날 보고서를 내고 금 선물이 앞으로 6개월 사이 온스당 1,6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근 6년만에 온스당 1,500달러를 돌파한 금값이 불과 6개월 사이 6% 가량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값 상승이 장기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는 보고서에서 금 선물이 앞으로 2년 사이 온스당 2,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 수준

에서 31%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다. 금값이 지난 2011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1,921.17달러를 큰 폭으로 넘어서며 랠리를 펼칠 것이라는 얘기다.

금속 상품 투자에 집중하는 펀드 스포츠의 휘트니 조지 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상황"이라며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의 투자 매력 역시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헤지펀드 업계는 이미 공격 베팅에 나섰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투기 세력이 보유한 금 순매수 포지션이 지난 6일 기준 한 주 사이 23% 급증, 28만5,082계약에 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 선물의 변동성이 최근 2016년 12월 이후 최고치로 뛰었지만 투자자들은 적극적인 매입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면전이 장기화될 여지가 높아진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최고화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이 미국의 화질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았다.

15일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디스플레이가 공개한 화질평가 결과에서 주요 평가 항목인 갤럭시노트10이 전작인 '갤럭시노트9'의 성능을 넘어 최고의 디스플레이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15일 '비즈니스포스트'에 따르면 갤럭시노트10은 이날 미국 디스플레이메이트의 ●밝기 ●반사율 ●색정확도 ●블루라이트 등의 화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엑셀런트A+(Excellent A+)를 받았다. 갤럭시노트10의 최고 밝기는 1,308cd/m²(m² 칸틸라, m² 넓이의 공간에 촛불 1개를 켜놓는 정도의 밝기 단위)로 측정돼 갤럭시노트9보다 25%가량 밝아졌다.

반사율은 4.3%로 현재 존재하는 디스플레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색 정확도는 0.4JNCD(Just Noticeable Color Difference, 0에 가까울수록 높은 정확도)로 집계됐다. 갤럭시노트10은 유해 블루라이트 감소로 사용자들의 시정 환경 개선에도 주력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디스플레이메이트는 갤럭시노트10이 설계 변경을 통해 유해한 블루라이트 비중을 갤럭시노트9 대비 37.5% 줄였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10의 디스플레이는 HDR(하이다이내믹 레인지)10+ 기술로 4K급 초고화질 콘텐츠를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HDR은 고화질영상의 표준규격으로 명암비를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디스플레이메이트는 "갤럭시노트10의 디스플레이는 지금까지 평가한 제품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라며 "삼성이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평했다.

1277호 숫자퍼즐 정답

8	1	4	9	6	7	3	2	5
3	5	9	1	2	8	4	6	7
2	6	7	5	3	4	9	1	8
4	8	1	7	9	5	6	3	2
5	2	6	3	8	1	7	9	4
7	9	3	2	4	6	8	5	1
1	3	5	8	7	9	2	4	6
9	4	8	6	5	2	1	7	3
6	7	2	4	1	3	5	8	9

부동산 사고 팔 때는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로즈메리!

Rosemary Hur
로즈메리 허
Realtor® | DRE #01967942
714.334.2292

부에나 파크 \$66만

방3/화2.5, 건평 약 1,900sf
아늑한 2층집
업그레이드, 높은 천장
HOA \$25

부에나 파크 \$65만

방4/화2.5, 건평 약 1,000sf
아늑한 2층집
업그레이드
가까운공원, 학교, HOA 25불

부에나 파크 \$45만

방4/화2.5, 건평 약 1,300sf
타운홈, 가격내림
Wood Laminated 바닥
샤핑, 교통편리, HOA260

라미라다 \$65만

방3/화2 건평 약 1,500sf
조용한 단층집 업그레이드
가까운 공원, 레스토랑
샤핑, 골프장

라미라다 \$62만

방3/화2, 건평 약 1,500sf
조용한 단층집
수영장, 편리한 교통
파크, 골프장, 식당

라미라다 \$58만

방3/화2, 건평 약 1,400sf
아늑한 단층집
깔끔한 조경
가까운 공원, 식당

플라센티아 \$57만

방3/화2, 건평 약 1,500sf
매력, 깔끔한 단층집
프리웨이 편리
좋은 환경

브레아 \$56만

방3/화2, 건평 약 1,500sf
모던한 2층 콘도
편리한 환경
HOA \$370

라하브라 \$60만

방3/화1.5, 건평 약 1,200sf
편리하고
조용한 단층집
리모델링

요바린다 \$62만

방4/화2, 건평 약 1,700sf
아늑한 단층집
업그레이드
편리한 프리웨이, HOA \$60

* 팔고 사는 집, 언제나 신중함과 성실, 인내로 모십니다 * 학군 및 용자 상담

8663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